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청년아 가자!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로”

8월 31일(토) 오후 4시 잠실실내체육관, 초교파 연합 대 부흥집회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갈 힘을 얻는다.”

청년들의 기도와 찬양이 다시 한 번 잠실벌을 뜨겁게 달군다.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이하 성령한국)가 오는 8월 31일(토) 오후 4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FILL IN'을 주제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찾고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성령한국>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을 세우기 위한 초교파적인 연합집회로, 김정석 담임목사와 박성민 목사(한국CCC), 이제훈 목사(온누리교회)와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가 강사로 나서며 만남, 비움&채움, 보내심을 테마로 오후 4시~8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요즘 청년들을 N포세대라고 부른다. 3포, 5포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신앙마저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대형교회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중소형 교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감리교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인들 중 청년의 비중이 현재 6% 미만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성하며, 본질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령한국>은 그 해법 중 하나로 성령의 능력으로 청년들에게 복음의 참 소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집회에 한 번 참석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절망과 좌절에 빠진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청년은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갈 힘을 얻는다. 교회 또한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세대를 넘어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성령한국>은 대회에 앞서 각 교회의 성장과 연합에 관심을 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세대를 양육하지 않을 때 10년 이내에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공동화(空洞化)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청년을 세우는 일에 뜻을 같이 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번 대회가 청년들만을 위한 집회가 아닌, 세대를 불문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대회임을 알리며, 세광교회와 일산광림교회, 선한목자교회, 종교교회 등에서 순회기도회를 열었다. 청년들과 각 교회 성도들은 연합하여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대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대표 예배인도자인 함

부영 씨(전 마커스 커뮤니티, 현 플레이트)와 이우람 전도사(온누리교회), LF미니스트리가 함께 찬양을 인도한다. 또한 기도운의 300용사를 기대하며 자원한 '성령한국 300연합콰이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정이다. 300명의 콰이어는 대회 이후 각 교회로 파송돼 예배인도자로 예배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성령한국>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세미나와 소그룹 모임, 지역 청년대회 등을 개최,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확장해 갈 예정이다.

대회 공동대회장을 맡은 김정석 담임목사는 “차세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영적 리더를 세우는 이번 대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 땅을 일깨우는 믿음의 세대로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빈 무덤의 증거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1~10)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

문들을 닫았더니”(요 20:19)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도 문을 굳게 닫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더 나아가 “성령을 받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과 달리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8일 만에 오셔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넣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시켜주신 후 제자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창자의 자국을 만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



마태복음 28:1~10

1.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지킴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5.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

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회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입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매우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도마처럼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증거 했음에도 믿지 않았던 것을 보면 도마의 행동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 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 지향적인 것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탁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구원은 누군가에 의해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길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였고, 그 희생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꽃은 한 번 시들면 죽지만,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매일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우리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변화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내가 매일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내 삶이 새 생명을 소유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성입니다.

예수님 부활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고귀한 존재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선다 싱(Sundar Singh)은 어느 날 길에서 한 수도승이 팔을 쳐들고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손으로 지은 죄가 많아 스스로 손을 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선다 싱은 수도승이 측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벌을 선들 그 손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온 몸을 매질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죄를 씻을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수도승은 그 말을 믿고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있고, 매일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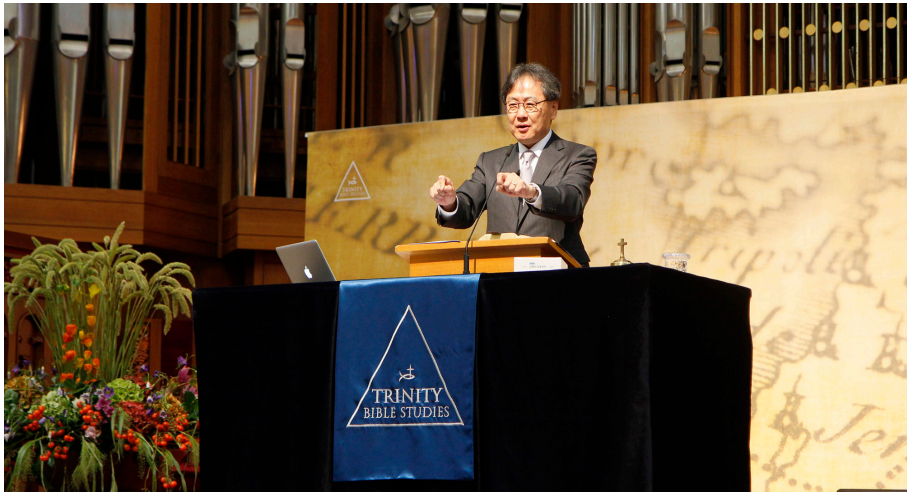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30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9월 3일 개강

<열왕기상·하> 말씀 통해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심을 깨닫는 시간



솔로몬 왕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19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9월 3일(화) 개강한다. 11월 19일(화)까지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는 열왕기상·하 말씀을 배운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약 40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42명의 왕들과 분열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광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왕들과, 여호와 보시기에 수 없이 악을 행한 오명을 지울 수 없는 왕들의 역사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섭리를 깨닫게 된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의 찬란한 성전 건축과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시작한다. 그러나 마지막은 성전이 훼파되고 나라가 멸망하며 왕이 백성들과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으로 대조를 이룬다. 분열왕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고 연구하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스라엘 못지않은 격동의 역사를 지내온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셨듯 우리나라도 든든히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접수 : 일반과정 8/25(주일)~9/3(화)
 통신과정 8/25(주일)~9/1(주일)
장소 : 광림교회 본당 로비 접수처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4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포토 뉴스



광복절기념주일

8월 11일 광복절기념주일을 맞아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짐하며 애국가를 제창했다.



Seed Talk '근육은 몸의 적금이다'

8월 11일 주일, 청장년부 Seed Talk에서 '근육은 몸의 적금이다'라는 주제로 헬스 큐레이터 김선우 원장의 강의가 있었다.



광림외국인제자센터 여름수련회

8월 18일 주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광림외국인제자센터 여름수련회가 열렸다.

담임목사 동정



- 8/11 광복절기념주일
- 8/11 2차 세례예식
- 8/13~15 2019 전교인여름수련회
- 8/25 남선교회 월례회
- 8/25 성경학교 보고예배

심령이 상쾌했던 <2019 전교인 여름수련회>



무더위와 씨름하며 한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이 "심령이 상쾌하게 되리라"(렘 31:25)는 주제로 <2019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열렸다.

8월 13일(화) 저녁예배를 시작으로 15일(목)까지 총 7회의 집회가 광림교회 본당 대

예배실과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전교인 여름수련회 강사는 대전 천성교회 조성근 원로목사였으며,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마음 판에 박히는 말씀들로 매 시간 은혜가 넘쳤다.

조 목사는 첫째 날, '성령을 받으라'(행 2:37~42)는 제목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고 성령의 열매, 생활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집회에선 '응답받는 기도'(삼상 1:9~18)로 하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알아보았고, 세 번째 집회에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행 6:1~7)라는 제목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와 덕목을 살펴 보았다. 네 번째 시간에는 '복이 되어라'(창 12:1~9)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를 밝혔다. 다섯 번째 시간에서

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요 15:1~8)는 제목으로,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구하였다. 여섯 번째 집회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러라'(창 22:1~12)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열납 되는 예배의 중요성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보았다. 마지막 집회에서는 특별히 자녀를 위한 서원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창 39:1~6)으로서 성경의 교훈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생각하며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성도들은 매 시간 말씀이 선포되기 전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개인의 영적 성장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와 8가지 공동기도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

변영혜 기자 yhyun1010@hanmail.net

9월 7일 <추석 합동추모예배> 리모델링한 감람동산에서



춘천에 있는 '사랑의 집'에는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광림교회 '감람동산'이 있다. 감람동산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자연친화적인 기독교 산골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장례와 이

장을 포함해 현재 871기가 안장되어 있다. 장례는 각 선교구 목사의 집례로 유족과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린다.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감람동산 리모델링이 9월 7일 추석 합동추모예배 일정에 맞춰 마무리 단계다. 장사도 장로(경조위원장)는 "감람동산의 요단강을 상징하는 계곡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실이 지속되었는데, 이번에 상류 쪽에 3단계의 보를 설치하고 수로를 우회하였다. 안정적 물길 공사와 펌프를 통해 요단강의 물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하였고, 푸른 나무와 잔잔한 물소리가 천국의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될 것이다. 고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기록한 명패가 붙은 곳은 기존 콘크리트 타일에서 대리석으로 교체해 더 넓고 깨끗하게 되었다. 또한 입구와 진입로도 새롭게 단장했고,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세면대 2곳을 새롭게 설치했으며, 요단강 다리 아래 테크를 설치하고 테이블을 두어 휴식공간도 마련했다"고 알렸다. 9월 7일(토), 정성껏 리모델링한 감람동산에서 열릴 이번 <추석 감람동산 합동예배>는 유가족들과 함께한다.

문의 : 조항장 권사 010-5218-4453

김혜경 기자 kyung5374@hanmail.net

감독 동정



- 8/13~15 2019 전교인여름수련회
- 8/18 광림서교회 주일예배
- 8/20 미국연합감리교회 뉴스 인터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현재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마음속에 하나의 흑이 있었습니다. '이 흑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가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고등부 겨울수련회>를 당일 고등부 전도사님의 전화 권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커다란 숙제였던 흑을 하나님의 힘으로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가며 흉터 없이 완벽하게 흑을 떼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는 예전보다 큰 흑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마음속의 흑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하던 중 저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부 목사님의 심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일기를 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흑을 또 다시 없앨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주변환경이 바뀔 때 즈음 다시 마음속에 흑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흑이 자라난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 만난 과거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서 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잊고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것들, 우선 순위 삼았던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합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어 힘들더라도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니까요. 그 풍파를 이겨내면 하나님 곁에서 자유한 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다"(시편 42:1)



김지현 성도 (중등2부 교사)

生生
생생속회 (40회)
18교구 남성 속회

18교구 남성속회, 라오스 해외성전 건축에 동참



라오스교회 조감도

축복의 간증이 많은 은혜로운 속회

18교구 남성속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 김진섭 장로의 병원에 모여 속회공과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 예배를 진행한다. 시작기도에 이어 지구장인 이창한 권사의 인도로 한주간 속원 각자가 겪었던 삶을 이야기한다. 이어 공과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 새겨 들어야 할 메시지를 찾고, 말씀 가운데 각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공유한다. 평범하면서 자연스런 속회의 한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12년 전인 2007년부터 시작된 모임은 점차 활성화가 되었고, 그 가운데 축복의 간증이 이어졌다.

매년 연말에는 전 가족들이 함께하는 감사와 친목의 자리를 가졌으며, 2016년 연말에는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담은 '남성속회 10

주년 기념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은 실질적으로 선교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라오스 성전 건축'으로 이어졌다.

해외성전 100개 교회 건축에 동참

처음에는 의료선교를 다녀온 속원들(김진섭, 이창한)의 선교보고를 통해 필리핀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김정석 담임목사의 제안으로 청년부에서 추진하는 '해외성전 100교회 건축사업' 중 56번째인 라오스(가칭 '라오몽교회') 성전 건축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성전 건축에 따른 기금은 2017년 추석 직후부터 시작하여 그해 연말까지 처음 목표

했던 미화 2만불이 모금되었다. 쉽게 건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라오스가 사회주의 공산국가이고, 한꺼번에 외국자본이 들어와 교회를 건축하면 종교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지법에 저축을 받게 되어 공사는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필요경비와 시설투자비 등이 늘어나 다시 추가모금을 하게 되었고, 회원들은 이번에도 기꺼이 동참하여 1차분 포함 총 3만 3천불(약 4천만 원)을 모금하였다.

지난해 준공예배를 드리려 했던 계획은 올해에도 그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남성속회 회원 중 6명(김진섭, 하태완, 이창한, 최원석, 고준영, 원치현)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라오스 해외의료선교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

최원석 집사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라오스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건축을 18교구 남성속회가 추진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하태완 권사는 "광림교회가 처음 신사동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 듯이 허허벌판인 라오스 그곳에도 광림교회와 같은 축복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섭 장로는 "공사가 더디 진행되는 것에 자랑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필리핀 의료선교>, 아이따 부족과 함께한 은혜의 시간



올해 필리핀 의료선교는 7월 26일~29일 일정으로 9년 전부터 매년 가던 필리핀 앙헬레스와 수빅 지역 내 여러 현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예년보다 적은 봉사인원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지에서 동분서주하며 수고하시는 박희영 선교사님과 매년 우리를 반겨주시는 알버트, 레슬리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회원들의 믿음과 정성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여행 성수기에 항공 예약이 쉽지 않은 시기임에도 선라이즈여행사의 양해로 마지막까지 선교지원자를 모집할 수 있었고, 출발 5

일 전 김호영 목사님을 포함 16명이 필리핀 선교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3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10명의 선교팀은 7월 26일 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7일 새벽 작년과 같은 숙소인 클락 지역 내 퀘스트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년보다 하루가 짧은 탓에 올해엔 바차완 교회와 까마칠레교회 2곳에서 소아과/내과, 이비인후과/피부과, 안과 환자 등 42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감염 등의 급성질환과 피부질환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이 다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영양섭취가 불충분하여 영양보조제

가 필요한 환자도 많았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박희영 선교사님이 10여 년간 임대해서 지냈던 앙헬레스 도심 숙소를 벗어나 '까렌시따'라는 이름으로 건축 중인 선교센터와 새로 지은 사택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렸습니다.

올해 4월 지진으로 인해 붕괴 위험에 처한 'UCC교회' 부속건물을 둘러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보수 후에 잘 사용 중인 예배당 안에서 잠시 스코틀랜드 피아노를 또 다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모두가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잘했다. 미려하지만 아이따 부족과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 선교팀을 올해도 인도하신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칫 지칠 수 있는 바쁜 여정에 건강한 웃음까지 챙겨주신 김호영 목사님, 단장으로서 그리고 유일한 약사로 고생스러운 약국업무를 총괄하고 수고해주신 서성훈 장로님, 그 밖에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정성껏 봉사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민경협 집사(광림의료선교교회)

청년들, 몽골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

8월 12일(월)~20일(화), 어링게르센터와 어르비트 새 성전에서 진행



건축 중인 어르비트 선교센터



2019년 광림교회 청년부 <몽골 해외선교>를 8월 12일~20일 9일간 다녀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선교를 다녀온 후, 이채욱 선교사님을 통해 팀장으로 다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팀장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분야를 내려놓고 다른 방향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휩쓸려가지 말라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몽골 선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끌만한 리더의 역량이나 지혜가 부족한 제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책에 맞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를 통하여 이번 선교 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말이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팀을 이끌어갈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몽골로 출국하기 전 날인 파송기도회 날이 되어서야 모든 팀원이 처음으로 모였을 정도로 바쁘고 여유 없는 선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묻거나 정죄하지 않았고, 다른 선교 일정이나 삶의 영역에서도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함께 중보하며 준비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팀원들을 배려하고 인내하고, 입술의 말을 절제하며, 온유와 화평을 지킴으로 물리적인 선교 준비보다 앞서 영적으로 관계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출발 당일까지도 짐을 정리하고 싸는 상황이었고, 워십과 성극은 한 번도 완전히 맞추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늘 앞서가시는 분이요 또 승리하시는 분임을 저희는 몽골 땅에 도착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스케줄과 현지 상황들은 매 순간 항상 변했고, 준비 기간에 이어 선교 기간에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 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팀은 어링게르센터와 어르비트 선교센터 두 곳에서 선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몽골 현지 가정을 방문해 전도했으며, 마을에서 축제를 열어 먹을거리를 주고, 아이들에게 풍선도 나누고 페이스페인팅도 해주면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십과 성극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워십과 성극은 기적처럼 성황리에 마쳤고, 수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만큼 사역이 끝났을 때 아무런 공로도 취할 수 없었고 모든 팀원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13년간 기도로 준비한 어르비트 교회 성전 건축이 응답되는 몽골 땅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심을 느꼈습니다.

이호근 성도(청년부)

신앙 간증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는 7월 24일~27일 태안지역으로 교육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태안의 7개 교회들이 연합해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태안지역 연합도 처음이고 저희 청년부에서도 처음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상 참여 아동인원은 80여 명으로 큰 규모의 지역이었으나, 팀원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고민하던 때에 아동인원이 1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 하길 원하시는 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쁨보다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그러다 태안지역 교회 청년부에서도 교사를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광림청년과 태안지역 청년들이 함께 준비하며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팀원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불안해 하였지만, 주님께서 태안지역의 교사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지역과 연합하는 더 큰 계획을 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은 실외에서 진행하는 코스게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태안에 도착한 날부터 비가 오더니 새벽엔 천둥번개 소리에 깰 정도로 비가 거셴고, 오전엔 호우 경보 재난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길 기대했는데, 그칠 기미 없는 비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여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역 목회자들께서 천막을 설치해주셔서 저희는 오전 내내 우산을 써도 피할 수 없는 비를 맞아가며 교회마당에서 실외코스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외진행을 못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실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져 우산을 쓰고 천막까지 가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시각 10분 전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함께 밖에서 준비하던 팀원들은 너무 신나서 서로 부둥켜안고 실내에 있던 팀원들과 아이들에게 '실외 코스게임 10분 전에 비가 그쳤다'는 기쁜 소식을 소리치며 다녔습니다. 여름성경학교는 장마와 겹칠 때가 많았지만, 그동안 교육선교에서 날씨에 관한 간증들이 있어서 우리의 일이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었던 제 모습이 하나님께 죄송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교육선교의 자리가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서희원 성도(청년부)

<제3회 국제기독교방송미디어컨퍼런스> 광림교회에서



'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는 주제로 진행 8월 19일(월)~20일(화)까지 이틀간 <제3회 국제기독교방송미디어컨퍼런스>가 '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는 주제로 광림교회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교회 방송 미디어가 단순한 기술과 도구를 넘어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이자 사역임을 한국교회에 알리기 위해 ICMC(국제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로 시작되었

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변화 속에서 세상과 다음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국 교회의 미디어 사역자들과 목회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19일, 마크췌 목사와 울산대영교회 강성철 선교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와 지앤컴리서치의 지용근 대표, 인권엔파트너스의 황인권 대표와 한주교회 김태훈 담임목사의 강연이 있었

다. 강연 외에도 기술세미나와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강연들, 워십 콘서트(Worship Concert)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의 주 강사인 마크췌(4B Media 공동대표, Hope Unlimited Church 수석목사) 목사는 직접 운영 중인 4B미디어 사역을 소개하며 "미디어 사역자 모두가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가진 주인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탁월하게 전하는 전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탁월한 선교를 위한 교회의 미디어 방향을 제시하며 어떻게 교회 미디어팀을 운영하고 콘텐츠화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선교가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임을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했다.

박신애 기자 milkpsa123@naver.com

이열치열 교회의 뜨거운 사랑

- 목회현장 -



김기윤 목사(11선교구)

뜨거운 여름에 유난히 발걸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언젠가는 겪게 되는 '장례'입니다. 여름이 되면 유족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유족들의 빈소를 찾아갈 때면 늘 처음 드는 걱정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어 감사할 뿐입니다.

빈소의 에어컨은 흐르는 땀은 멈추게 해도, 그 눈에 고이는 눈물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오직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줄 이들이 모여 예배가 시작되면, 애써 참았던 가족들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예배 자리가 유족들의 슬픔을 품는 자리가 되는 광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위로하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곳에 온 지 꼭 1년 되던 날, 참 많은 사랑을 주고 떠나신 분의 첫 성묘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를 더 신경써 주시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여름 많은 장례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하는 11선교구의 성도들과 본인의 슬픔보다도 찾아온 이들을 더 마음 쓰는 유가족들을 볼 때마다 바울 사도의 외침이 생각났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상을 당한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슬퍼하는 이들과 뜨거운 위로와 사랑을 나눌 때에, 그 무더운 날씨도 죽음의 절망도 힘을 잃었습니다. 먼 곳까지 함께하며 위로하는 조가찬양단까지 우리 광림교회는 늘 이열치열의 성도들로 더위와 슬픔을 극복합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 슬픔을 겪어야만 했던 모든 광림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뜨거운 사랑이 이열치열의 힘이 되어 모든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광림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행복한 아이들 모습 <2019 여름캠프 전시회>

- 광림남교회 -



매년 있는 여름행사지만, 올 여름 광림남교회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는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22일(목)~24일(토)까지의 <청년부 수련회>와 23일(금)~24일(토)까지의 <청장년부 연합수련회>, 8월 25일(주일) 저녁에 배 시간의 <2019 여름캠프 보고예배>를 끝으로 모든 여름행사가 잘 마무리됨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관심과 격려, 성도들의 물심양면의 후원 및 기도 덕분에 광림남교회 믿음의 다음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림남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여름행사를 마무리하고 보고하는 이 시기에 <2019년 여름캠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8월 18일(주일)부터 25일(주일)까지 광림남교회 교

육관 1층 '예수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유아부에서 고등부까지 각 부서마다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예수와는 광림남교회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료와 다과를 염가에 제공하는 교제와 만남의 장소입니다. 쾌적하고 깔끔한 이 예수와의 세 벽면에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한 부분씩 담당하여 어떤 주제와 어떤 교제를 통해 배우고 나누었는지, 즐겁고 유익한 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알리고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전시회보다 더 풍성한 수의 사진들을 전시하여 아이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중/고등부는 올해

도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잘 담아낸 동영상 상영하여 생생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광림남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향한 성도들의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적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해 사랑의 마음과 기도가 더 잘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행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광림남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모양의 후원과 관심, 중보기도 덕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를 통해 성도들의 정성이 열매 맺어지는 모습을 나누는 이번 전시회가 광림남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영범 전도사(광림남교회)

제주도 미자립교회 두 곳 찾아 섬김과 나눔 실천

8월 1일(목)~3일(토), <남선교회 하계수련회>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음의 씨앗 뿌려



남선교회총연합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에서 8월 1일(목)~3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특별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작년에 도움을 주었던 제주도의 미자립교회 두 곳을 다시 방문해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눴다.

섬이라는 특성상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층이 적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월평교회(최요셉 목사), 성화교회(윤사무엘 목사)는 남선교회 임원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남선교회 임원들과 회원들은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소망하며 심시일만 모

은 후원금과 전도용품(물티슈와 담터차)을 전달했다.

두 교회에서 개회예배와 폐회예배를 드리면서 작년보다 성장한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각 교회의 기도제목을 놓고 눈물로 뜨겁게 기도드렸다. 두 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은 "광림교회 남선교회의 섬김과 사랑에 큰 힘이 됐다"며 광림교회와 담임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첫째 날, 무려 11시간 동안 한마음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한라산 등반은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 속에서 더위가 가실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다.

둘째 날은 해수욕장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

간 듯 물장구치며 마음껏 즐겼다. 그리고 정갈하고 맛있는 향토음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피로를 풀고 새 힘을 공급받았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장)는 "제주도의 미자립교회를 찾아 섬김과 나눔을 베풀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던 이번 하계수련회를 기억하면서 하반기에도 교회의 여러 행사에 남선교회가 더욱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2019년 남선교회 하계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남선교회 임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배민호 권사(남선교회총연합회 문화체육본부장)

영어성경원(EBA), 해외선교 위해 새로워지다

9월 1일 주일 오후 2시 개강,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강의



많은 호응 속 아카데미로 확장된 영어성경원 2009년 전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대학장 이선우 교수의 재능기부로 개설된 <영어성경반 EBC : English Bible Class>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어성경원 EBA: English Bible Academy>로 확장되어 2019년 9월 1일(주일) 오후 2시 개강한다.

영어성경원은 수업 분위기가 좋고 성도 간 교제가 활발하다. 2019년 4월 1일(월)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선우 교수의 열정과 지식으로 풍성한 강의에 수강생들이 하나로 뭉친 날이었다. 수강생 간 단합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학기 반장이었던 이기식 장로(해사 교장 역임)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행사였다.

예전의 영어성경반 EBC는 이 교수의 언어학적 깊은 지식과 열정으로 영어 구문과 문

장 독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가을 학기부터 바뀌는 영어성경원인 EBA에서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강의하며 강의의 주안점이 말하는 'Speaking'으로 옮겨간다. 그동안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평소 언어학자의 소신대로 말과 글이 같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해외선교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다. EBA 영어 강의를 청년들의 선교역사에 '획기적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이 교수는 수업을 열심히 준비 중이다.

양경순 장로는 "영어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용이해져요. 교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강의를 준비하시고 해박한 성경지식에 기초하여 유창한 영어로 열강하시니 성경의 통합적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이 문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어 어렵지 않습

니다. 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쳐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라 좋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선우 교수는 "우리 광림교회 청년들에게 영어 지식, 특히 영어 말하기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영어성경원 EBA의 출발이 해외선교를 나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가을부터 많은 광림의 성도들은 서정적 목가도 있고 웅장한 서사시도 나오는 영어성경을 읽으며 감동의 물결을 느끼는 이선우 교수의 열정적인 EBA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다.

일시 및 장소 : 주일 오후 2시, 양의 문
문의 : 양경순 장로 010-8545-1945

안미영 기자 amy1216@sogang.ac.kr

어번던트 라이프(Abundant Life) <묵시로 읽는 성경 다니엘>

풍성한 신앙생활의 길잡이 어번던트 라이프. 가을학기 주제 말씀은 '다니엘서'이다. 핍박과 포로생활의 설움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을 위로하였던 다니엘서는 오늘 불안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도 소망과 회복을 선포한다.

가을학기 강의를 맡은 김기윤 목사(11선교구)는 "묵시로 읽는 성경 다니엘"은 어떠한 내용이며,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늘 똑같이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사자굴과 풀무 불 같이 매번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묵시로 읽는 다니엘서' 강의는 저자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 시도입니다. 왜 다니엘의 이야기는 성경 중 하나가 되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고백이 되는 '성경'이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묵시라는 한 장르를 이야기하고 나누며, 성경을 기록하고 간직했던 이들의 현상으로 가 보려 합니다. 다니엘의 지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했다.

주제 : 묵시로 읽는 성경 다니엘
일시 : 9월 8일(주일)~11월 17일(주일)
11주간 진행
장소 : 양의문(본당 지하 1층)
접수 : 광림교회 본당 로비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4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8월 11일 주일 <2019년 2차 세례예식>에서 90명의 성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츄즈 라이프(Choose Life) <신약의 강>

복음의 시대를 열어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이다. 가을 학기 츄즈 라이프는 예수님 시대를 전하는 '신약의 강'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 강의는 김호영 목사(6선교구)가 맡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실제 삶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담대히 적용하는 광림의 성도들을 말씀의 숲으로 초대한다.

주제 : 신약의 강
일시 : 9월 8일(주일)~11월 17일(주일)
11주간 진행
장소 : 두란노 강의실(본당 지하 1층)
접수 : 광림교회 본당 로비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4

- | | | | | | | | | |
|----------|----------|----------|----------|----------|----------|----------|----------|----------|
| 1교구 정민석 | 2교구 모석기 | 2교구 김강호 | 2교구 김소희 | 3교구 김요자 | 4교구 임창학 | 6교구 김점숙 | 6교구 김태권 | 6교구 김선우 |
| 7교구 김길선 | 7교구 박지영 | 8교구 김진호 | 9교구 안금옥 | 9교구 박제성 | 10교구 김진기 | 11교구 김태훈 | 11교구 류승민 | 12교구 정길동 |
| 12교구 정철원 | 13교구 박준원 | 13교구 김수진 | 14교구 이수연 | 14교구 이승희 | 14교구 이미정 | 15교구 홍성훈 | 17교구 남경빈 | 17교구 박은경 |
| 17교구 김영우 | 17교구 이경민 | 18교구 김은정 | 18교구 최정인 | 19교구 유지원 | 20교구 최동규 | 20교구 차숙경 | 21교구 김두현 | 21교구 안지민 |
| 21교구 오일선 | 21교구 임현정 | 21교구 황지원 | 22교구 김재홍 | 22교구 양호길 | 23교구 신서림 | 23교구 이응진 | 23교구 우진석 | 26교구 김정숙 |
| 27교구 손미경 | 28교구 임성빈 | 28교구 허윤아 | 30교구 손영배 | 31교구 김소영 | 31교구 이종호 | 33교구 이창희 | 33교구 오세욱 | 51교구 한정관 |
| 52교구 신나경 | 52교구 차다인 | 52교구 김영우 | 52교구 임영준 | 53교구 김만식 | 54교구 오미현 | 61교구 김동학 | 61교구 강모란 | 71교구 이은경 |
| 88교구 송시현 | 88교구 정명진 | 88교구 김서환 | 88교구 김성현 | 입교 -> | 1교구 양지나 | 3교구 김혜원 | 4교구 임채리 | 7교구 이봉용 |
| 7교구 이주원 | 8교구 이재준 | 10교구 배기범 | 19교구 김승주 | 25교구 김혜원 | 26교구 정하영 | 27교구 박준형 | 29교구 황정환 | 29교구 조영빈 |
| 30교구 이하경 | 31교구 김태진 | 31교구 김재현 | 31교구 김윤수 | 31교구 김윤서 | 32교구 김세용 | 32교구 김규영 | 52교구 주수진 | 52교구 손예지 |
| 54교구 최민경 | | | | | | | | |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Holy
Spirit. (Romans 15: 13)

FILL IN []

The Holy Spirit MOVEMENT

2019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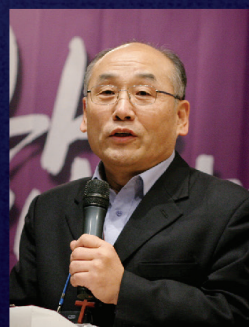
PM 4:00 잠실실내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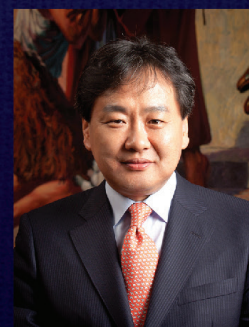
박성민목사
한국CCC대표



이재훈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용의선교사
순회선교단 대표



김정석목사
광림교회 담임목사